

포스코 열연제품·후판·냉연제품 가격 13~20% 인상

車·家電·건설업체 원가부담 '눈덩이'

철광석·유연탄 등 원료 가격 급등 여파

기아차, 올 300억~400억 추가 부담해야

포스코가 철광석과 유연탄 등 원료 가격의 급등을 반영해 열연제품과 후판·냉연제품 등 주요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혀 철강업체는 물론 자동차·가전 업체·건설사 등 광주·전남 기업들의 원가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.

포스코는 ▲열연류와 조선용 후판·선재·주물선 등을 t당 12만원(20.6%) ▲일반용 후판은 t당 7만5천원(12.9%) ▲냉연류는 제품별로 생산 공정에 따라 t당 12만~14만원이 각각 인상할 방침이다. 주물선은 제외한 제품의 인상가격은 오는 17일 주문분부터 적용되며 주물선은 5월20일 주문분부터 가격이 오른다.

포스코는 최근 원재료 도입가격 협상에서 철광석 가격이 65%, 유연탄 가격은 200% 이상 인상되는 등 원료 가격이 급등에 따라 원가부담이 크게 늘어나 주요 제품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.

이에 따라 기아차 광주공장의 경우 올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원가부담은 300억~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.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, 자동차 1대를 만드는데 통상 1t의 철강재가 소요된다. 기아차 광주공장의 올해 생산목표는 34만대로, 냉연재 가격이 12만원 오르면 400억여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.

기아차 관계자는 "올 초 냉연재 가격이 t당 6만원 오른데 이어 이번에 두배 가량 상승하면 원가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"이라고 말했다.